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창래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60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정기총회...제7대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선임 등

서울 성균관컨벤션에서...대종회 “국내외 일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청송심씨대종회(회장 심대평)는 3월 22일 서울역 맞은편 LG빌딩 지하1층 만복립에서 대종회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1일(화) 오전 11시 성균관컨벤션웨딩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에서 제71회 이사회와 4월 27일(목) 같은 장소에서 제 53회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정기총회 안건은 아래 정기총회 소집공고 참조〉



대종회 회장단회의...왼쪽부터 심규하 울산내금위공종회장, 심상우 판사공종회장, 심대섭 지성주사공종회장, 심동섭 악은공종회장, 심능광 부회장(청송), 심정구 문장,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심석산 정이공종회장, 심상현 도총제공종회장, 심갑보 명예회장, 심규정 재무이사, 심연태 총무이사(사회), 심종혁 감사, 심충진 감사, 심재덕 부회장(안동), 심대평 회장, 심재규 부회장(광주), 심현근 부회장(대전), 심상국 봉익대부공종회장 (사진=심상익 문화이사)

청송심씨대종회 제53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 ◆ 일시 : 2023. 4. 27(목) 오전11시
- ◆ 장소 : 성균관컨벤션웨딩홀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 02-744-0677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 ◆ 소집대상 : 청송심씨 성인(남녀) ※ 신분증 지참

부의안건

1.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3. 대종회 임원 선출의 건
- 제7대 대종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4. 기타사항

2023. 3. 31.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대평

과거·현재·미래에도 청송 심문은 특별하다!

4세조 선조님의 역사찾기

고려말 문하시중, 조선초 좌정승을 역임하신 4세조 청성백(휘 德符), 고려말 전리판서를 역임하신 악은공(휘 元符) 형제분의 공적(功績)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청송심문의 자랑스런 역사를 정립코저 한다.

- 주제 : 고려말 조선초 안동의 인물연구.
“출사와 은거” -안동 와룡출신 청송심씨 沈德符·沈元符 형제를 중심으로-
- 주최 : 안동시청
- 후원 : 경상북도청 · 청송심씨대종회

(6면에 관련기사)

일가 9명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 축하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 8명, 산림조합 1명, 심문의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일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4면에 당선자 명단〉

沈門의 동량 -

세계 지도자로 우뚝 서길...

2023년 제5기 청심장학생에 중·고교생 6명, 대학(원)생 8명 선발, 축하드립니다.

〈3면에 장학생 명단〉

지난 5년간 행복 했습니다.



〈심대평 대종회 회장이 걸어온 길〉
 제4회 행정고시 합격
 의정부시장(제12대)
 대전시장(제22대, 제24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충청남도지사(관선 제24대, 민선 33대, 34대, 35대)
 국회의원(17대 대전 서구을, 18대 충남 공주시·연기군)
 국민중심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천하의 명당 수원 안효공 묘원

임기 끝자락에서 안효공을 찾아뵙다!

안효공종회 심무섭 회장 초청을 받아 지난 2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 소재 안효공종회 사무실을 예방했다. 목적지 방문 전에 안효공 심온(沈溫)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비록 입춘을 갓 지난 시기였지만 이날 따라 봄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햇볕이 따스했다.

겨우 12세(1386년, 우왕12년)에 문과에 급제하시어 정안공 심덕부 아버님의 위업을 드높이시고 탁월하신 역량을 발휘하시며 영의정에 오르셨던 이력을 회고했다. 1418년(태종18년)에 명나라 사은사(謝恩使) 임무를 맡아 출국하셨다가 모함을 받아 겨우 44세에 생을 마감하는 해가 되었으니 그 허망함을 기리며 숙연한 마음으로 참배에 임했다. 첫 배례는 지난 5년 동안 대종회 회장직을 맡아 이제 마무리하게 된 보고의 의미였고, 두 번째 배례는 영원한 심문의 번영과 도약을 영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원을 담았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발길에서 묘소 일원을 둘러보니 많은 회상이 떠올랐다. 우선 묘소 전경을 살필 때 천하의 명당임을 직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왕릉 못지않은 위풍에 새삼 청송심씨 문중의 대단함을 느꼈다. 둘째, '인지하 만인지상'의 좌정승, 영의정에 오르신 정안공(휘 德符)―안효공(휘 溫)―공숙공(휘 濬) 3대 선조님의 총명(聰明)과 기개(氣概)가 길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셋째, 5,000여평에 이르는 묘원 일원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조경도 잘 가꾸어진 상태를 목도하면서 멀지않은 장래에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 직후 무섭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환대해주시는 종회사무실에 당도했다. 오찬을 겸한 신년교례는 우애와 배려의 정담이 넘쳤다.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송 沈門은 파종회를 구심점으로한 지역종회가 더욱 발전하게 되길 소망해 본다.

(글: 정리 = 심재금)

대종회장 임기중 발전방안 8대사업 추진상황

정관 및 규정 정비

- 7대종파 종회장(당연직) 및 권역별대표로 회장단 구성 원칙 정립
- (재) 청심장학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 등 제 개정

종보발행 개선

- 기사면수 : 격월, 기본 12면 제작 정립
- 발행부수 : 7,000부 (목표 10,000부)
- 전문편집인 위촉을 통해 기업탐방, 일가 동정, 지파종회 소식 등 다양한 소식 발굴, 소개
- 「10,000원 이상 협찬 일가 구독자 10,000명 확보운동」 전개

송조돈목의 실천

- 제1회 한마음대회 개최 : 2019.10.4.~5 관향 청송에서 5,000여명 참여
- 청송 보광산 시조님 묘역 진입로 청송군사업으로 착공

- 진포대첩기념비 건립(군산시), 4세조 청성백 할아버지 묘소안내석 건립
-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 역임 공적찾기
- 안동 와룡 가장실 '沈관서묘' 규명 추진위원회 구성
- 13상신송조사업TF 운영(위원장 심재득)

심문달력 제작배부

- 제작 : 2021년도부터 3년째 제작배부
- 부수 : 8,500부 (벽걸이 6,000부, 탁상용 2,500부)
- 소재 : 청송심씨 선조님 사료, 유적지 관련 사진

장학사업의 활성화

- 2019.7.29 : (재) 청심장학회 법인등록 (서울교육청)
- 2019.10.5. : 제1기 장학생 선발...고교생 2명, 대학(원)생 등 8명
- 2020. 6.13.: 제2기 장학생 선발...고교생 3명, 대학(원)생 등 7명
- 2021.12.31.: 세제감면 기부금단체 인가 (기획재정부)

- 2021.4.17 : 제3기 장학생 선발...고교생 6명, 대학(원)생 등 9명
- 2022.4.18 : 제4기 장학생 선발...고교생 6명, 대학(원)생 등 8명
- 2023. 4월중: 제5기 장학생 선발...고교생 6명, 대학(원)생 등 14명

효율적인 종재관리

- 잔경회관 이전 준비
- 재산관리위원회 구성(위원장 심상조) 및 종재현장 답사
- 종재전수조사 준비

역사박물관 · 서울학사 건립

- 잔경회관 이전과 병행 추진

청장년회 참여촉진

- 모바일 접속 검색기능 보강 홈페이지 개편 등 젊은 세대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
- 청장년층, 여성(청송심씨 따님) 등이 대종회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5기 청심장학생 14명... 4월15일 오전 11시 장학금증서 수여



청심장학회 운영위원회 장면

3월 13일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이사장 심대평, 운영위원장 심오택)는 재단 사무국에서 장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2023도 제5기 청심장학생을 선발하였다.

1. 심사대상 : 총 38명 (중고교생 8명, 대학생·대학원생 30명)
2. 심사기준
 - 수학능력 및 재능 (학생부, 학점, 추천서 등 참고)
 - 효행 정신 및 품성 (학생부, 추천서 등 참고)
 - 장래 발전 가능성 (장래목표 도전 계획서, 추천서 등 참고)
3. 선발방법 (Blind 심사)
 - 중학생(특기생) :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선발
 - 고교생 : 신청자 4명에 대하여 위원별 개별심사하고, 다수위원이 상위랭커로 평가한 2명 선발 및 제4기 청심장학생 중 고교생 3명에 대한 재선발 심의결정
 - 대학(원)생 : 신청자 30명에 대하여 위원별 개별심사하고, 다수위원이 상위랭커로 평가한 8명 1차 선발 후, 별도 영상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4. 제5기 청심장학생 : 중고교생 6명, 대학(원)생 8명 등 총 14명 (명단 우측)
5. 장학금액 : 58백만원(중고교생 1인 3백만원, 대학(원)생 등 1인 5백만원)



청심장학회 이사회 장면(3월20일)... 장학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재) 청심장학회 이사회에서 최종심의하여 확정했다.

제5기 청심장학생 14명...4월15일 오전 11시 장학금증서 수여

심민경		삼성여고 2년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매우 적극적이며 모범적임. 장래 희망은 공학계열에 들어가 노력하여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조민수		선덕고 2년	자율형사립고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함. 물리학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장래 로봇공학자가 되어 재난상황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함.
권유은		울산 화암고 2년	전교과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며 모범적이고 학급반장으로 기획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음. 장래 의료계열을 목표로 노력하여 훌륭한 의료인이 되고자함.
심태린		예원학교 2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피겨를 5살 때 부터 지금까지 배워 왔고, 한국무용과 발레로 예원학교에 입학한후 다수의 주요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등을 수상하였음, 장래 한국을 빛낼 수 있는 대표 무용수가 꿈
강예은		대전 노은고 1년	특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있으며 더 깊이있는 공부를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사가 되고자 함.
심희준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 1년	IT기반 Aitleo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수학,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융합 연구활동에도 매진하여, 장래 자원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함.
심우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년	장래목표는 경제학전공과 ESG 경영 활동 경험을 살려, 특히 ESG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등을 통해 법적 선제화에 힘쓰고자 함.
심정윤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2년	환경공학의 위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공학의 관리, 급수 및 폐수문제, 대기오염 및 관리에 대한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다루는 토목 공학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함.
심한준		서울대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학원 박사과정	항공우주분야에서 항법, 제어분야 전문가로서 국가 항공우주산업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하고자 함.
심재욱		경희대 한의학과 기초한의과학과 석사과정 1년	바이오 의생명공학과로 진학한 계기는 분자적인 수준에서 암세포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세포와 연관된 매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단순히 약물로 유도하여 암을 사멸시키는 것 보다는 인체내의 모든 세포들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물질들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자 함.
심여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4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민·형사적 기초법률지식과 헌법을 공부하고 '개인' 즉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탄탄한 법률적토대를 익히고 나아가서 국제법에 법적기초를 구성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공부하여 국제법전문가가 되고자 함.
심영서		이화여대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3년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도시건설 분야에는 3D 모델링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디피닝 기술이 필수적인 개발기법으로, 시설물정보모델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시각화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미래건축물의 가상화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
심재현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과학기술정책학과 3년	기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기획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변리사가 되고자 함.
이주현		미국 텍사스 주립대 4년	장래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육성하고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 기회, 관심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함.

모범적인 조합 경영으로 조합원과 심문의 기대에 부응해 주세요!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9명의 일가분이 당선됐습니다. 농업협동조합 8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9명입니다. 피 말리는 선거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런 당선인께 심문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일가분들의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일가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선인께서는 심문 후손의 자부심을 갖고 조합장 직함을 빛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

대전 북대전농업협동조합



심청용(沈淸用) 조합장

경기도 고양 송포농업협동조합



심은보(沈銀輔) 조합장

경기도 파주 월릉농업협동조합



심금택(沈兢澤) 조합장

강원도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심상돈(沈相暎) 조합장

강원도 홍천농업협동조합



심영주(沈永周) 조합장

전라북도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심재집(沈載集) 조합장

경상남도 진주중부농업협동조합



심철효(沈哲孝) 조합장

경상남도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심재강(沈載康) 조합장

충청북도 충주산림조합



심재이(沈在二) 조합장

산림조합

심 민 임실군수 동정

“마법같은 관광시대, 섬진강 르네상스 연다”



걸어서 봉어섬까지...임실 출렁다리 열렸다. 옥정호~봉어섬까지 길이 420m 다리 개통(3월~10월 : 9시~18시, 11월~2월 : 10시~17시, 입장마감 : 운영시간 1시간전, 매주 월요일은 휴무)

심덕섭 고창군수 동정

고창 방문의 해! 전북 고창으로 오세요!



고창방문 여행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드립니다

고창방문 여행사, 당일 방문	관람내국인20명 또는 외국인 10명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음식권 1개소 이용	1인당 5,000원지원
고창방문 여행사, 숙박	관람내국인25명 또는 외국인 10명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숙박이용	1박당 1인당 10,000원 2박 이상시 1인당 50% 추가지원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풍요롭게 찬란하게

심덕섭 군수...“관계인구 10만명, 예산 1조원, 관광객 1천만명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일가 기업탐방 -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심인택 이사장...2022년 「새마을포장」 수상

2022년 자산 4,400억 원 기록...전국 1,40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자금 성장률 전국 1위



심인택 이사장

MG부산제일새마을금고는?

부산제일새마을금고의 비약적인 성장이 금융권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난해 자산규모 4,400억 원을 기록하며 전국 1,40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자금 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심인택 이사장 취임 당시 자산규모는 겨우 640억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4,400억원을 넘었고, 거래자 수도 2만 5,600여 명에 이르며 부산광역시 관내 대형금고로 도약한 것이다. 영업지점도 사상구 감전동 본점 뿐만 아니라 명지국제신도시지점, 강서신호지점, 강서서부지원지점, 강서대저지점 등 총 4개소를 확장 개점하면서 상호도 '부산제일새마을금고'로 변경했다. 외형적 성장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내재적 자산 상태가 탄탄해졌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권에서도 심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경영체질 개선에 성공한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경영방침을 주목하고 있다. 심 이사장은 1981년도 2월에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첫 인연을 맺은 이래 35년 동안 새마을금고 사무를 밑바닥부터 익힌 소위 '새마을금고 마당발'이다. 그 누구보다도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잘 터득한지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한 경영철학과 차별화된 영업전략이 새마을금고 경영에 획기적 혁신을 이끌었다. 경영혁신의 3가지 요체는 우선, 임직원들에게 애사심을 심어주어 직무수행 역량을 최고 수준

으로 끌어올렸다. 둘째, 심 이사장 특유의 친화력과 고객감동 리더십으로 영업시장 저변확대에 성공했다. 셋째, 새마을금고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사랑의 줌도리 운동' 등 지역연계 고객 맞춤형 경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21일 「2022년 새마을포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친화력 앞세운 '가족 리더십' 빛나 '고객도 가족처럼', '직원도 가족처럼'

심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특화된 영업전략은 부산제일새마을금고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심 이사장은 '고객을 찾아가는 이사장이 되겠다'며 취임 첫 방문지로 감전동 새벽시장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이웃에게 가족처럼 다가섰고, '직원의 사기진작이 곧 새마을금고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경영방침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큰 공을 들였다. 고객과 새마을금고의 상생을 위한 심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성과를 낸 것이다.

1970~80년대에 본점 소재 사상구 감전동은 인구수가 2만 5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고, 영세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그나마 부산 최대의 새벽시장이 활성화되어 재화유통은 활발했지만, 지역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었다. 심 이사장은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개척지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며 강서구 명지동 일대를 영업 전략구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명지동은 에코델타시티가 건립되는 등 부산의 신도시로 개발이 한창이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잠재력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명지동 일대는 농협이 선점하고 있던 터라, 새마을금고의 진입이

쉽지는 않았다. 지역 민심이 새마을금고에 모두 손사래를 칠 때라서 심 이사장은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강서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새마을금고 마케팅을 통해 7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아 어렵사리 영업지점을 개설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금고 상호마저 '감전새마을금고'에서 오늘날의 '부산제일새마을금고'로 변경하고, 영업전략도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자산이 2020년 2,000억원 돌파에 이어 2021년 3,200억원, 지난해에는 4,400억원을 넘어섰다.

전국을 들썩이게 한 과감한 특판전략

부산제일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 전국을 들썩인 8%대 정기예금 특판을 내놓았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농협 모지점이 실수로 고금리 대출상품을 공지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으나 부산제일새마을금고는 실제로 대출자금이 필요해 과감한 상품을 출시해 단시간에 필요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영터리 뉴스에 잠시 속앓이도 했지만, 오히려 부산제일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책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역사랑과 새마을금고 경영의 상생 전략 추구

부산제일새마을금고는 남다른 지

역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줌도리 운동에 동참하고 새마을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정기적인 지원과 지역민과 소통을 위해 분기별 도시락 전달과 생필품을 기탁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 자장면 후원'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만남의 장이자, 웃음꽃이 만개하는 부산제일새마을금고만의 특별한 나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부산제일새마을금고는 영업상황에 맞춰 본점을 강서구로 옮길 예정이다. 곧 정기총회에 이를 상정하고 "수년 내에 본점 이전을 통해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상호에 걸맞게 부산에서 제일가는 금고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송회' 회장을 맡아 부산총회 발전에 기여

한편, 심 이사장은 청송심씨부산총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부산총회는 경향각지에서 이주한 일가분들이 모인 지역총회로서 300여명이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있다. 심 이사장은 40여 년동안 부산총회에 참여하고 있고, 청송회 회장을 맡아 심문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중보취재 기업탐방을 계기로 대총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글 = 심재덕 부산총회장)



왼쪽부터 심상보 부산총회 총무, 심남이 이사, 심인택 이사장, 심상억 문화이사, 심재덕 부산총회 회장

선조님 역사찾기 학술세미나 추진

1380년 8월 진포대첩 도원수와 1394년 9월 신도공궐조성도감 판사 역임 등 4 여년 동안 구전되는 안동 '沈판서묘'에 대한 규명 등을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를 세조 청성백(휘 德符) 할아버지의 공적(功績)에 대한 학술 논거를 정립하고, 600 추진한다.

I. 학술세미나 개요

고려말 조선초 안동의 인물연구 “출사와 은거” - 안동 와룡출신 청송심씨 沈德符·沈元符 형제를 중심으로 -
1. 심덕부 생애와 학문적 경향 고찰
2. 여말선초 조선건국과 심덕부의 관각생활
3. 여말선초 심원부의 은거와 절의정신
4. 안동 와룡의 심판서 묘소의 주인은? 주관 00학회, 주최 안동시청, 후원 청송심씨 대종회·경상북도청

II. 핵심 과제

① 4세조 정안공(휘 德符) 공적찾기



□ 진포대첩 도원수 심덕부 (1380.9월)
○ 2016.11.20 : 『서해도원수 심덕부 장군 진포대첩전승기념비』 건립위원회 현판식
※ 좌승지공과임 피종회 중심(법인설립 기금 및 운영비 등 3,000

만원 정도 조성)

- 2021.7.5 : 심재웅 회장 주선 간담회(대종회 심대평 회장, 심상익 문화이사 등)
- 7.22 :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회(회장 심재득)에서 추진방안 논의
- 8.27 : 심대평 대종회장·승조사업TF 일행 군산 진포대첩기념탑 현장답사
- 10.13 : 沈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 협조요청
- 10.27 : 군산시 황철호 부시장 주재 관계자회의(대종회 심규정 재무이사)
- 2022. 2.14 : 군산시 실무협의방문(심상익 문화이사, 심규정 재무이사 등)
- 6.17 : 심대평 대종회 회장 및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회 심재득 위원장 일행 진포대첩기념비 제작·건립 완공 현장답사
▶ ‘조선왕조실록 최무선졸기’를 근거로 도원수 沈德符, 상원수 나세, 부원수 최무선 표기
- 2023. 3.15 : 익산 한일문화연구원 양은용 교수 주관 간담회 참석
▶ 익산시 옹포 「진포대첩기념물」 건립방안 논의(심상익 문화이사, 심규정 재무이사)

□ 신도공궐조성도감 판사 역임(1394년 9월)

- 2022.10.18 : 서울시의회 沈미경 의원실 예방(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 심상익 등)
▶ 서울시역사찾기사업에 ‘신도공궐조성도감 판사 공적’도 추적토록 노력
- 2023. 1.18 : 沈미경 서울시의원 추진방안 브리핑

② 안동 ‘심판서묘’ 규명

- 2022. 4. 7 : 종보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재석 박사 「안동 沈판서묘」 규명 제안
- 4.23 : 심대평 대종회 회장 지시로 안동 沈판서

- 묘 현장답사
- 4.25 : 심상조 석촌공종회장 「안동 沈판서묘 규명위원회」 구성
- 6.13 : 심상조 석촌공종회장, 심재열 동국대 풍수지리학 교수, 심상익 문화이사, 심재오 沈판서묘 규명위원장 등 규명위원 현장답사
▶ 심종래 종보편집위원 - 종보제157호, 제158호, 제159호 시리즈연재
- 7.20 : 악은공종회 심우영 前 총무처장관-심상조 회장 沈판서묘 규명 협의
- 11. 9 : 심대평 대종회 회장, 심능광 부회장, 심상조 석촌공종회장, 심우섭 안효공종회 부회장 등 일행 沈판서묘 현장답사
- 2023. 3. 11 : 沈판서묘 소재 산주(山主) 안동권씨대문내과과좌문중 권순길씨 예방

III. 학술세미나 과정 및 과제

- 추진과정
 - 2. 8 : 학술세미나 관련 소회의
※ 심상익 문화이사, 안동대 신두환 한문학과 교수, 심준섭·심종래 沈판서묘규명위원
 - 2. 22 : 고려대 심경호 한문학과 교수(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자문
 - 2. 28 : 신두환 교수 「학술세미나 기획안」 심의회의
 - 3. 22 : 대종회 회장단회의 보고
- 학술세미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 4세조 德符·元符 형제분의 역사 찾기 - 학술史料 재정립
 - 600여년 동안 구전되고 있는 안동 와룡 ‘沈판서묘’ 규명

- 3세조 청화부원군(휘 龍) 배위 ‘金씨 본관’ 규명
- 4세조 德符·元符 출생지 ‘안동 태현리 대릉’ 규명
- 안동시 「고려문화거리조성사업」에 반영방안

IV. 향후추진 전략

① 상징물(동상, 기념비 등) 건립

□ 신도공궐조성도감 판사
조선 태조 3년(1394)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아. 종묘·사직·궁궐 등을 짓고 도시를 정비하는 일을 맡았으며, 태조 7년(1398)에 작업이 일단락되면서 폐지되었다. (국어사전)
⇒ 서울특별시 역사찾기사업에 「4세조 심덕부 판사 공적 상징물」 건립 반영
□ 군산 진포대첩 도원수
진포대첩은 1350년 왜구들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이래 30년 만에 고려 수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이며, 또 대왜구 투쟁에서 고려가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이기도 하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4세조 심덕부 도원수 공적 상징물」 건립방안 강구

② 선조님 공적 역사교과서 수록

□ 신도공궐조성도감 판사, 진포대첩 도원수 등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주요공적은 역사교과서에 수록하여 사실관계를 널리 알리고,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며
□ 4세조 전리판서(휘 元符)의 고려말 충신 5隱표기 혼란 등 국어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의 선조님 관련 사료가 오기(誤記), 왜곡(歪曲)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인터넷 상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재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佳藏室所在 世稱 沈判書墓所宗中守護에 關한 建議文 (요지)

○ 와룡 가장실 거주 향노 구전(鄉老 口傳) ‘沈판서묘’는 묘하에 사는 누구에게 물어도 통칭 ‘沈판서 묘소’라고 말한다.
○ 위 묘소 1리미만에 청화부원군 전거지이며 정안공이 나신 태현 대릉촌이 있다.
○ 려말 전후 4~50년간 판서급 역임 沈씨 선조 중 실전 묘소는 전리판서 2세 조 봉익대부공(휘 晟)과 그 차남 3세조 상호군(휘 卿), 전리판서 4세조 악은공(휘 元符), 승록의금부 판사 5세조 판사공(휘 義龜) 중 한 분이다.
위 묘소의 정확한년대 및 대위는 미상이나 청송沈氏 선대묘소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으로 단정하니 청송 중대산소 선례에 따라 대종회에서 수호할 것 건의
※ 청송보제12호 138~139쪽 (1975. 8.발행) 요지 발췌

‘학술세미나 개최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추진 결의(선조역사찾기위원회, 2월 28일)



선조님역사찾기위원회 위원장에 심은석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추대...왼쪽부터 심해구 이사, 심창보 인수부윤공종회 총무, 심재웅 이사,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 겸 악은공종회장, 심재금 전 김포한강 신협본점 이사장, 둘째줄 왼쪽부터 심상익 문화이사, 심현보 전 대종회 감사, 심상돈 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심은석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심규정 재무이사, 심창래 종보편집장

자랑스런 일가 - 전통한지공예 심화숙 장인명장



심화숙 전통한지공예 장인명장

<걸어온 길>

- 사단법인 전통한지공예가협회 회장
- 사단법인 북촌 열두공방협회 회장
- 사단법인 서울 한지문화제 이사장
- 2002년 신지식인 선정 제175호 (중소기업청)
- 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재단 이사
- (전)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전) 한국중요무형문화재보존협회 이사
- 한지명인 지정 (행정안전부, 한국 지역경제 살리기 중앙회)
- 2001 사단법인 전통한지공예가협회 창립

세계가 주목하는 전통한지공예의 명장... 문화 한류 정상에 우뚝 서다!

로 '한지공예양성과정'을 개설하였고, 나는 훈련생 지도교수로 초빙되면서 작품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결국 사단법인을 등록하였다. 국· 내외 전시가 활성화되고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1, 2급 한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 지원 프로젝트산업에 한지공예 브랜드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한지 공예산업 육성에 R&D자금을 받아 한지 실, 한지 천, 가죽을 소재로 한 가방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라져가던 전통한지공예에 한지 회화기법, 소재개발 등 한지 분야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록만해도 12개다. 저작권은 23개이고, 저서도 '한지공예 입문 초보 를 위한 한지공예 이론'을 비롯해서 7권정도이다. 2002년 코트라 주관 영국,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일등상품 로드쇼'를 비롯해서 국내외 56개 전시회에 참여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명인 심사를 포함해서 48개 대회 심사위원장, 위원으로 참여했다. 결론적으로 한지공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Q. 전통한지공예 명장장인 칭호를 얻기까지 가장 힘들 때와 또 가장 보람있을 때는?

한지공예에 입문하지 28여 년이나 흘렸지만 아직 크게 힘든 기억은 없다. 아마도 한지가 좋고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반면에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당시에 홍보대사가 되었던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코트라(Kotra) 주관 세계 100대 로드쇼가 개최될 때에는 삼성, 대우 등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한지공예품으로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회 홍보할 기회를 가진 것은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추억이다. 그때 한지공예품으로 이층장, 삼층장, 문갑 등을 만들었다. 홍보전시실을 관람한 영국 앤드루 왕자도 만나고, 피에르 가르방의 초대를 받기도 했다. 그들은 재질이 한지공예가 아니고 실크(silk) 같으면서 넥타이 킷 제작을 의뢰했다. 가슴 벅찬 순간을憶누르며 한지공예품을 만들어 냈었다. 이 공예품에 매료된 그들은 매해 짝수 년도에 참가 해줄 것을 제안했다.

2004년도 전시 기회를 가졌는데, 당시 하루 사용료만 600만원이니 10일이면 6천만 원 상당이지만 한지공예전시는 2천만 원만 지불토록한 누리기도 했다. 그 이후는 특혜가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참가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한류열풍에는 한지공예도 한몫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한지공예 명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Q. 전통한지공예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외 전시와 한지공예 교육 설명회를 약 60여회 다녔는데, 그때마다 '재질이 종이 가 맞냐'는 질문을 받았다. 한지공예품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내니 신비로운 눈빛으로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너무 뿌듯함을 느낀다.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 3.1절 특집을 위해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국회의원이 우리 법인을 방문했을 때 윤봉길 의사가 독립선언문을 소지하고 해외에 나간 뒷얘기를 들려주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감시통제가 워낙 엄격한 시국인지라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때였다. 윤봉길 의사는 한지에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가다가다 꼬아서 짚신을 만들었고, 장기간 체류를 핑계로 몇컬레를 주렁 주렁 달고 해외에 나갔다고 한다. 프랑스에 입국하여 짚신을 가장한 한지를 풀어서 조립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한다. 오늘날 지승공예 기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한지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한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요즘 지직화(紙織畫) 공예 기법을 연구개발중이다. 그림 두 장을 가로세로로 잘라서 꿰 맞춰 만드는 한지공예로서 마치 유화같은 질감을 보여줄 수 있다. 처리 과정은 단색 종이를 가지고 두드리서 만드는 것인데, 비슷한 색을 뜯어서 두드리면 어우러져 그라데이션(gradation)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럽 프랑스 유화 작가하고 콜라보(한지회화)로 전시회를 할 계획이다.

Q. 끝으로 일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자랑스런 청송심씨 일가분들을 많이 만나 너무 행복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욱기 국장님, 헌법재판소 심승훈·심규석 사무관님, 심태섭 주무관님 그리고 사진작가 심흥섭 일가님과 심영미 매듭장인을 한자리에서 만나 대화할 수 있어 영광이다.

무슨 일을 하던지 우리 일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도 한지공예를 하면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 심문의 자부심을 갖고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다할 각오이다.

(취재 = 심지수 종보편집위원)

Q. 한지공예(韓紙工藝)란 무엇입니까?

한지는 섬유질이 풍부한 닳나무로 만들어 질감이 부드럽고 종이결이 매우 질기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항균성이 뛰어나 수명이 오래간다. 이처럼 한지를 재질로 하여 다양한 공예품이 생산되고 있는 공정을 통틀어서 한지공예라고 일컫는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지로 기물을 만들어 사용하며 전해 내려오는 것이 '한지공예'의 시초이다.

고유의 전통적인 한지공예 기술을 계승하면서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지를 재질로한 공예분야도 다양해 졌고, 새로운 트렌드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전통한지공예 분야의 산업화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Q. 한지공예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뜨개질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생활공예에 호기심이 많아서 몰두하다보면 겨우 3개월만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단조로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별명이 '3달짜리'였다. 그러한 놀림 당하는 것이 속상하던 차에 우연히 한지공예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창조지만으로 기물을 만들었는데 전통한지공예품을 연구하면서 은근히 매력을 느꼈고, 드디어 1997년에 공방을 차려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Q. 전통한지공예를 연구하시면서 취득한 자격, 특허 등 다른분들과 차별화된 기법은 무엇인지요?

2001년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업군으



종보취재를 방문축하해 주신분들...왼쪽부터 심흥섭 사진작가, 심태섭 헌법재판소 주무관, 심화숙 전통한지공예명장, 심승훈 헌법재판소 사무관, 심규석 헌법재판소 사무관, 심욱기 서울국세청 제1조사국장, 심상익 문화이사, 심영미 매듭장인

가문을 빛낸 독립운동가 (3)

한말 의사 심의선(沈宜璿) 선생



노호 심정섭(鷹湖 沈禎燮)
수필가,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노을진 노루내에
바람 소리 임의 소리
도포 속에 깊은 정을
구휼救恤 위해 베푸시니
상기도 고을 한턱에
별이 되어 빛나라.

아아 어두운 한말韓末
을사 이후 슬픈 일월日月에
창의倡義의 뒷길에서
뼈를 짚는 아픔이여
그 열은 연면히 살아
즈믄 가슴 흐르리라.

보배로운 고을 보성(寶城) 노루목에서 도포 입고 빈민의 아버지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았으며 을사늑약(乙巳勒約) 이후 주권을 찾기 위해 의병운동에 뛰어든 한말 의사의 거룩한 행적을 시인 송선영(宋船影)이 노래하였으니 그 주인공은 누구더뇨. 아! 한말 의사 주촌선생이여라.

선생은 1870년 9월 5일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노루목에서 5세조 판사공(判事公, 휘 義龜)의 17세 종손(宗孫)으로 태어났다. 선생의 이름은 의선이요 자는 난수(蘭秀)이며 호는 주촌舟村이다.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제사 지내는 흥내를 내었고 남에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였으며 장성해서는 지나가는 길인이나 길손에 이르기까지 유숙은 물론이고 식사와 의복까지 주었다. 이러한 선행사적은 재당숙 능표(能杓)의 문집 '모암유고(慕岩遺稿)'의 '주촌기(舟村記)'에 잘 나타나 있다. 효자로 고을에 널리 알려져 '조선강헌록(朝鮮綱獻錄)'의 효행편에 등재되었다.

1909년 3월 보성에서 안규홍(安圭洪)이 비록 머슴 출신이어서 학문이 깊지 않았지만 강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군자금에 없어 가세가 넉넉하고 인망이 뛰어난 선생을 찾아가 의병장이 되어주기를 간청하였으나 장재(將材)가 아님을 정중히 말하고 극구 사양하였다. 선생은 참관 박남현(朴南鉉)과 함

께 군자금을 보내니 보성 의진(寶城義陣)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1909년 10월 왜적들이 의병 토벌대를 만들고 관군을 앞세워 보성군 북내면 노루목에 헌병분대를 설치하면서 체포작전에 돌입하였다. 왜적들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간 주민이 선생을 밀고하여 보성 헌병본대에 끌려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문 속에서 가사상태(假死狀態)에 이르자 거적을 덮어씌워 석방하였다.

왜적들의 분탕질에 누대의 문서나 서책이 회진되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의 11대조 희숙(喜淑)과 9대조 향수(恒壽)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창의일기(倡義日記)가 불타버린 것이 가문의 한이요 나라의 비극이었다. 가사상태에서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소생하자 이러한 일제의 만행 소식을 듣고 구례에 거주한 진사 황현(黃玿)이 찾아와 위로하였다. 이별한 지 반년이 못되었을 때 황현은 망국의 한을 자결로 승화하였다.

선생이 병석에서 경술국치의 소식을 듣고 북망통곡(北望痛哭)하고 두문불출하였다. 일제가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소위 왜왕이 은사금을 내렸을 때 선생은 결사적으로 거절하였다.

한학자 위계도(魏啓道)가 '지사 주촌 심공전(志士舟村沈公傳)'을 지어 '소하(蕭何)가 후방에서 군량을 운반함과 조참(曹參)이 전장에서 창칼로 역경을 무릅쓰고 승리함은 동일하다'고 말한 것은 선생의 군자금 조달을 소하에 비유하여 찬사한 것이다. 선생은 피폐한 농촌을 일구기 위해 보성에서 처음으로 못줄을 사용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하였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처럼 일제가 외면한 구

흘정책 때문에 식량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해 사랑채를 개방하여 과객이나 길인을 보살핀 것은 선생이 진정 애국지사요 독립운동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임정 국무위원 백강 조경한(白岡 趙擎韓)은 선생의 애국애족정신을 추모하며 '주촌거사 심공 행적찬(舟村居士沈公行蹟讚)'을 지었다.



주촌 심의선 선생 선적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촌 선생은 聞道舟村翁 고향에서 기민 구제에 공이 많았네 鄉多賑恤功 하물며 나라가 망할 즈음에 況是國亡際 의병을 돕는데 어찌 바쁘지 않았겠는가! 應援倡義戎

선생이 1945년 8월 14일 별세하니 향년 76세였다. 백강 조경한이 묘갈명을 지어 아래와 같이 추앙하였다.

어진이를 국보(國寶)라 한다.
장원(獐原)에 묻힌 국보
주촌묘에
누구나 공경할진저.

(2012년3월30일 발행 종보 제94호에 이어 연재)

청송심씨족보 기축보(인영본) 기증

노호 심정섭 향토 사학자는 청송심씨족보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청송심씨족보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1545년(인종원년)에 시초보로 가정을사보를 간행하고 1562년(명종 17년)에는 제2차로 가정임술



왼쪽부터 심정섭 향토사학자, 심상익 문화이사, 심상우 판사공중회 회장

보를 속간하였고 1578년(선조11년)에는 제3차로 만력무인보를 증수하였다는 기록(서문)만이 있을뿐 보편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서문)은 1649년(인조 27년)에 간행된 기축보(2권 1질)가 외고덕수씨가에 소장되어 있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제4차 보임은 분명하며, 현재 청송심씨 보편으로서는 최고의 대동보록인 것이다. 심정섭 사학자는 기축보가 소중한 사료인 만큼 대종회에서 보관토록 기꺼이 기증해 주셨다.

성균관 고문·원임부관장이 들려주는 전통예절 (1)

제사의례(祭祀儀禮)에 관한 소고(小考)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왔다. 이러한 칭송을 듣게 된 것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있어 사람의 도리와 질서를 엄격히 지켰고,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사례를 정해 그 예(禮)를 행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므로, 안으로는 모든 위계질서가 유지되었고 밖으로는 세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옛 전통문화가 번거롭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1973년 5월 17일 정부가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의식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하게 고쳐, 낭비를 막고 건전한 생활 자세를 기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바 있었다. 당시로 보서는 획기적인 개혁이었으나 세상이 바뀌니 지금은 아예 그때보다 더 약식화 되어 전통사례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례만 하더라도 우리 청송심씨 대종회에서는 지난 2019년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관향 청송에서 개최하면서 재현한바 있고, 국립대학 한문학과나 성균관, 향교 등에서 가끔 재현할 뿐 좀처럼 접하기 어렵게 되었고, 혼례와 상례도 현대화 되어 거의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르게 되었을 뿐 접하기 어렵다. 필자는 간소하게 치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식이 엄숙하기보다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 이벤트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히 제례(祭禮)만은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비교적 원형을 보존해 잘 모시고 있는 편이고, 우리 대종회에서도 매년 춘추로 5처2단소(五處二壇所) 향사를 정성껏 받들고 있다. 이하 제향도 각 지·파별로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심문(沈門)은 역시 삼한갑족으로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제사의식이 어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케케묵은 일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조선시대 역대 임금님과 충신을 모시는 종묘제례(대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성균관 석전대제도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해 둔 상태이니 우리의 제례문화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받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필자는 성균관 부관장과 향교의 전교를 역임한 유림(儒林)으로서 평소에 5처2단소 향례에 참석하면서 가끔 갑론을박하는 경우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관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기술하고자 한다. 이왕 선조님의 향사에 참석했으면 크게 힘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조상님의 음덕으로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 공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첫째, 5처산소의 향례 시 가끔 헌관의 선정을 두고 섭섭해 하는 일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아무리 큰 향사도 헌관은 단 세 사람뿐인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선조님의 제사에 참석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해야 하며 꼭 무슨 역할을 맡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손이나 대종회장이 초헌관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종손도 아니면서 한 사람이 여러번 맡으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일가 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도 양보하여 다른 종파, 다른 일가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점잖은 모습이다.

둘째, 향사에 임하는 제관은 잡담을 금했으면 한다. 헌관이 선조님께 술잔을 올리고 있는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탄전을 피우고 사담을 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참사자 모두가 선조님께 잔을 올리면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 모두를 대표해서 삼헌관이 잔을 올리는 것이니 즉, 내가 술잔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건이나 갓은 눈썹에서 1~1.5cm 정도로 내려쓰는 것이 좋다. 유건이 아마가 다 보이거나 뒤로 넘어가면 매우 불경(不敬)스럽고 정숙해 보이지 않는다.

넷째, 사대(도포 끈)는 도포 고름 위쪽에 매어야 한다. 허리에 매거나 두 겹으로 칭칭 감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유림은 하늘색 끈을 맨다. 성균관에서는 옛 당상관 이상이면 붉은 띠를 맨다. 지금도 성균관 부관장이나 향교전교로 임명되면 붉은 사대를 하사한다.

다섯째, 공수법(拱手法)은 어른이나 상사 앞에 임할 때, 묘전(廟殿)에서나 음례(揖禮) 때, 의례행사 때 존경과 경건한 자세로 두 손을 마주잡는 의칙(儀則)이다. 남자는 길사(吉事)때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서 잡고, 여자는 오른손이 왼손위에 오르게 하며 손의 위치는 배꼽의 위치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 단 흉사(초상 등)때는 반대로 한다. 이때 머리와 어깨는 조금 굽히는 것이 좋다.

여섯째, 승강계법(乘降階法)은 신주를 모신 사당이나 묘위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법도다. 오를 때는 동쪽 계단으로 오르는데 오른발을 먼저 올리고 왼발을 모우고, 내려 올 때는 서쪽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왼발을 먼저 내리고 오른발을 모우고를 반복한다.

일곱째, 신로(神路)와 신문(神門)을 출입할 때는 오른쪽 길과 오른쪽 문(東門)으로 들어가고, 참배 후 나올 때는 왼쪽 문(西門)으로 나온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동문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나오는(東門入 東門出)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한 단계 높은 길은 신로(神路)이기에 가능한 밟지 않아야 한다. 사당의 중앙문도 제수(祭需)나 축문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

다음은 일반 가정집에서 모시는 제사에 대해서 가끔 논란이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제사를 모시는 날자는, 돌아가시기 전날을 임제일이라 하여 재계하고, 제사준비를 하여 돌아가신 날 첫 시에 모시는 것이 조선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돌아가신 날 저녁에 모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한다.

둘째, 제삿날이 윤달인 경우에는 윤달에는 모시지 않고 바른 달에 모신다. 만일 음력 윤달 30일에 돌아가셨다면, 30일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마지막 날에 모시면 된다.

셋째, 아버지의 제삿날이 설날이라면 아버지의 기제사가 우선일까? 차례가 우선일까?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한데, 기제사를 우선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예학자들은 차례가 우선이라고 한다.

넷째,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가고 몸은 땅속으로 돌아간다. 제사 때가 되면 주인은 향을 피워서 양(陽)의 혼을 모셔오고 모사기(茅沙器)에 술을 따라서 음에서 백(魄)을 모셔온다. 이때 술을 따르는 것을 뇌주라 한다.

다섯째, 축문에서 효자(孝子) 아무개 감소고우(敢昭告于)라는 글귀에서 자기 자신을 효자(孝子)라고 하는 말은 효자니 불효자니 하는 말이 아닌 '맡이'라는 뜻이다. 『儀禮』와 『朱子家禮』에 근거해서 졸곡(卒哭)은 아버지의 경우 고자(孤子), 어머니의 경우 애자(哀子), 졸곡이후의 부제(拊祭)부터 효자라 쓴다.

여섯째, 제사상에서 생선의 머리는 서쪽이고 배 부분은 신위를 향한다. 제사상의 방위는 신위가 계신 곳이 북쪽이다. 신이 제사상을 마주하고 앉아있다고 가정할 때, 수저를 든 손이 위치한 곳이 서쪽이다.

일곱째, 술잔을 올릴 때마다, 초헌관은 육적(肉炙) 아헌관은 어적(魚炙) 종헌관은 계적(鷄炙)을 올린다. 炙은 불에 구웠다는 뜻이다.

여덟째, 사가(私家)의 제사에서는 익힌 음식을 사용한다. 종묘와 사직과 문묘 등 공가(公家)와 불천위 제사에는 날것을 함께 사용한다.

아홉째, 남녀구분 없이 제사에 참석한 사람은 함께 절을 한다. 여성도 돌아가신 분에게 잔을 올리며 제사에 참여한다. 첫 번째 잔은 장남인 남편이 올리고 두 번째 잔인 아헌은 아내(주부)가 올린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라도 차남이나 삼남 등은 제사에서는 맡겨드리보다 그 순위가 아래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주 기본이 되는 제사의례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예를 다 논하려면 끝이 없지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였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날의 국민의식은 신위(神位)를 중심으로 공경심과 추모하는 정성보다, 산 사람 위주로 편하고 쉽게 하려는 추세라서 차츰 효(孝)사상이 쇠퇴해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 청송심씨는 삼한갑족이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거족이니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정성을 다 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 『朱子家禮』 『四禮便覽』 등



악은공종회장 겸 대종회 부회장 심동섭
성균관 고문·원임부관장

청송군 현동면의 <강심보姜沈洑>를 아십니까



천제봉. 여기서 흘러내린 물을 가두어 '강심보姜沈洑'라고 했다. 강심보는 이웃들의 농토에 큰 혜택을 주었다. 2022.10.4. 필자 촬영, 이하 동일.

1. '강심보'는,

'강씨와 심씨가 보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청송심씨 13세조인 심세영沈世英(1684~?) 공과 부인인 진주강씨의 성을 따서 만든 명칭이다. 강심보는 청송군 현동면 천제봉天祭峰 아래 월매月梅에 있다.

강심보는 현재 흔적조차 없다. 그 유적지와 심세영 공의 묘소를 찾고 있던 필자는, 청송의 부남면에 거주하시고 종사에 밝으신 심상철沈相哲 일가분께 상의하였다. 상철 어른은 얼마 후 현동면의 심상익(91세) 일가를 소개해 주셨다. 상익 옹은 이웃의 촌로들에게 묻고 물어 '강심보'의 위치를 찾아냈고, 그곳으로 필자를 안내하였다. 상철·상익 두 어른께 깊이 감사한다.



강심보 터(폭 10m, 높이 2m 정도) - 우측은 보의 위치를 알려 주신 심상익 옹.

2. 통정대부 심세영(1684, 숙종 10년 ~?)은,

자가 웅만雄萬으로 악은공의 큰 아들인 영동정 심천윤 공의 둘째 아드님인 심효연沈孝淵의 후손이다(『악은공파보』 上, 618쪽). 효연 공의 후손들은 청송의 부남면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현동면은 청송읍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고 외진 곳이다. 여기에 심세영 공이 살았으나, "흉년이 들어 주민들이 굶어죽고 질병이 창궐하여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영 공은 이 참상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감옥용 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본인은 경북 영양英陽으로 유배를 갔다. 이에 주민들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공이 사면되고 그곳 영양에서 거주하다가 작고하였다(『심세영묘비문』, 7행)."

공의 묘가 타향인 영양군에 있게 된 까닭이다. 사후 심세영 공에게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의 증직贈職이 내려졌다. 공이 별세하자 부인 진주강씨는, 아들 셋[심내용, 심내윤, 심내인]과 더불어 고향 현동면 천제봉 아래에 터를 잡고 들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면서 보(洑)를 막아 이웃의 매마른 농토에 물을 대주어 풍년이 들게 하였다. 천제봉 아래 길게 늘어진 월매천을 타고 흐르는 물을 막아, 그 아래의 들에 물을 대줌으로써 큰 시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 보를 강씨부인과 아들 삼형제가 축조하였다 하여 보의 이름을 '강심보'라 불렀으며 그 두들을 '강심보들'이라 전하고 있다(『청송지명유래총람』, 156쪽)." 이런 사실을 지금은 아주 연로한 어른들만 구전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3. 청송심씨 문중의 자랑

- 청송군 청송읍의 <거평보>(『종보』 157호, 8면 참고)와 현동면의 <강심보>



심세영 묘역. 청송군 현동면 월매 소재. 이 묘를 찾는데 심상익 옹의 협조가 컸다. 심세영 공의 묘비는 사후 300년 지난 시점인 1997년에 건립됐다.

종보 제157호에서는 청송읍의 <거평보>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우리는 <거평보>와 <강심보>의 두 사례를 통해, 어려웠던 시절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심씨 선대의 그 숭고한 정신에 감격한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활동을 후손들은 찾아내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조상을 현창하고 이웃과 자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진주 강씨는 공의 묘소를 고향으로 이장하지 못한 채, 한을 남기고 별세하였다(1756년, 『악은공파보』 上, 618쪽). 그 후 300여 년이 지난 1997년에 후손들이 세영 공의 묘소를 고향으로 이장하여 부인과 합봉하였으니, 숙부인淑夫人의 오랜 숙원이 풀린 셈이다. 이제 "공의 훈령은 하늘에 있으되, 혜택은 후손들이 불(『심세영묘비』-명銘)" 것이다.



심재석 (종보기자)



심세영 비문에 나오는 '강심보'. 비문은 심명택 前청송문화원장이 썼다.

종회탐방... 현재공파종회를 찾아서



학교 설립자 심영구 선생님

조선남종화의 뿌리를 내린 천재화가 심사정, 청송심씨 현재공파 파시조(派始祖) 되다!

I. 현재공파종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는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후손들이 고림동 일원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고, 마을 한복판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덕영고등학교가 있다. 일평생을 교육계에 봉직하신 청송심씨 24세손 심영구 선생님이 1974년에 설립한 학교라고 한다. 요즘은 아들 심종식 현재공파종회 회장이 이어받아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공파종회 일가분들은 4세조 정안공(휘 덕부) - 5세조 인수부윤공(경창부윤, 휘 징) - 11세조 과천현감공파(증이조판서, 휘 금) 계보의 후예들이다.

계묘년 3월 3일 아침, 특별한 종회를 탐방취재하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을 향해 출발했다. 덕영고등학교 이사장실에 당도하자 미리 도착한 인수부윤공파종회 심재구 회장, 현재공파종회 심종식 회장, 현재공파종회 심성식 총무를 비롯한 일가분들이 반겨주셨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심종식 회장은 이사장실에 비치된 고림동 심씨집성촌 사람들의 사진과 내력이 수록된 '현재공파보'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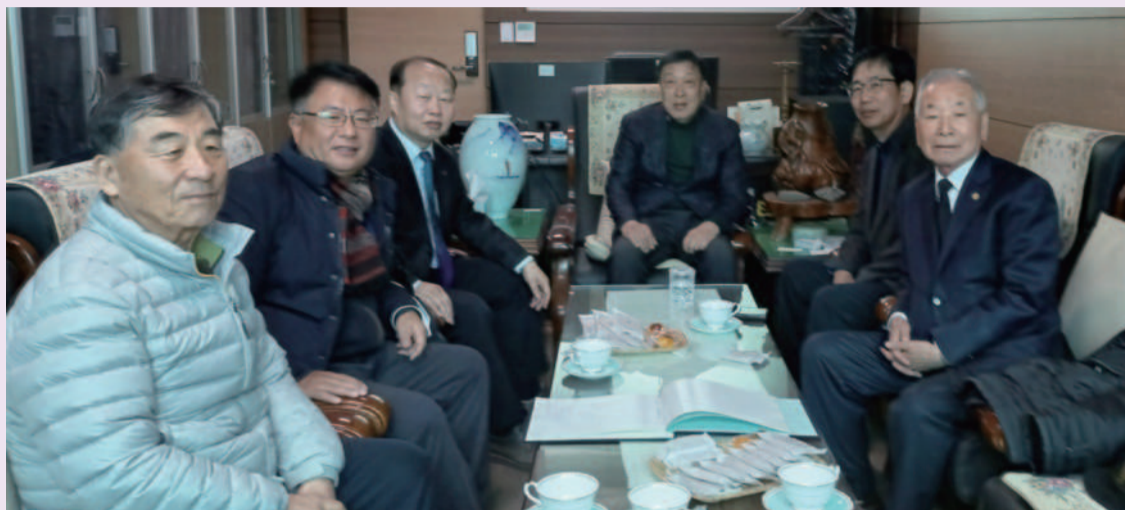
수십년 전부터 '고림동 심씨 집성촌 사람들'은 17세조 현재공(휘 사정)파종회를 결성하여 송조돈목에 술선수범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공파종회 심종식 회장은 "조선시대 3대 화가인 현재공과 포도 그림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선친 죽창공(휘 정주) 부자(父子)의 묘소 관리와 추모사업을 수행하고, 고림동 집성촌 후손들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며 살아가는데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공파종회'를 결성하였다"고 설명한다. 특히 현재공파종회는 조선 후기 대표적 화가 현재공(휘 사정)의 네임 밸류(name value) 만으로도 종회 결성에 무게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심사정' 화가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종회 운영도 적극적이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II. 대(代) 이은 화가의 삶과 예술

죽창 심정주(竹窓 沈廷胄) -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부자

1. 조선 회화사(繪畫史)에 큰 족적을 남긴 현재공은 명문 사대부 출신으로 영의정 심지원의 증손이며, 승지를 역임한 학자이자 문인화가인 정유점의 외손이다. 효종의 부마이며 서예가인 심익현의 종증손이다.

2. 죽창 심정주(1678년~1750년)는 조선 후기 포도 그림의 대표적 문인화가로 평가되고 있다. 「송천필담」에는 '당시 유덕장의 묵죽(墨竹)과 심정주의 묵포도(墨葡萄)가 세상을 휩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덕영고등학교 이사장실... 왼쪽부터 심우삼 현재공종회 이사, 대종회 편집위원 심종래, 대종회 문화이사 심상익, 현재공파종회 회장 심종식(덕영고등학교 이사장), 현재공파종회 총무 심성식 (주) 쓰리에스인텍 부사장, 인수부윤공파종회 심재구 회장

포도 그림은 가문의 회복과 재현을 의미한다. 죽창공은 포도 그림으로 자신의 자생 뿐 아니라 명문가로서의 재생과 재현의 소망을 담아 두었던 것 같다. 오늘날 현전하는 죽창공의 작품이 적은 점이 아쉽다.

3. 현재 심사정(1707년~1769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가로서 진경산수화풍을 확립한 겸재 정선, 풍속화의 틀을 갖춘 관아재 조영석(또는 공재 윤두서)과 함께 3재(齋)의 한 사람이다. 현재 심사정은 중국화풍이던 남종문인화풍을 토착화하여 조선 화단에 조선남종화의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조선 그림을 세계로 나가게 하였다. 현재공의 대표작으로는 <강상야박도, 파교심매도, 축잔도> 등이 있다.

당대에 현재공의 예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표암 강세황(예조판서; 시·서·화 삼절)은 현재의 그림에 대하여 '현재(심사정)가 겸재(정선)보다 더 낫다. (중략) 그는 화훼와 초충을 가장 잘 그렸고 영모(새나 짐승), 산수 순으로 잘 그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신 김조순(영안부원군)은 '겸재(정선)의 그림은 아취(雅趣; 아담하고 우아한 정취)에 있어 현재(심사정)의 그림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이규상(학자, 「일몽고」의 저자)은 '영조시대 현재 심사정과 겸재 정선이 쌍벽을 이뤘다'고 기술하였다. 현재공께서는 63세를 일기로 한많은 일생을 마쳤다. 화가로서의 명망에 비해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다 할 만큼 불우하고 고립된 삶 속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려나간 불행한 일생을 살았다.

말년(1768년)에 그린 축잔도권(보물 제1986호)에는 현재공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글이 있다. 그림 오른쪽 끝에는 '세개탁아독청(世皆濁我獨淸; 세상 모두가 더러워도 나 홀로 깨끗하네)', 왼쪽 끝에는 '택근청산 문수벽류(宅近靑山 門垂碧柳; 집 가까이에는 푸른 산이 있고 문가에는 푸른 버들가지가 드리웠네)'라는 글에 낙관이 찍혀 있다.

III. 죽창공-현재공 부자 묘소 참배

현재공파종회는 경기도 파주군 분천리에 안장된 죽창공과 현재공의 묘역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1978년 4월에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서리 산 231-3번지 종중산으로 천장하여 오늘날까지 관리하고 있다. 종중산이 용인대학교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접근하기는 용이하지만, 묘소 안내판 설치는 향후 과제인 것 같다.

종중산은 약 3만평 정도의 임야이다. 일가분들은 묘 하 공터에 주차하고 현재공 묘소까지 약 7분간 걸어 올라갔다. 종중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 죽창공과 현재공의 묘가 나란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 회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과 마주하게 된 사실에 숙연함을 느꼈다.

IV. 종회탐방을 마치며

현재공파종회 심종식 회장 말씀의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죽창공과 현재공의 묘소와 주변의 역사문화공원화, 현재공의 낙관과 묘소의 향토문화재 지정, 죽창공과 현재공의 사료 정리 등을 위해 대종회, 청송심씨 문중의 도움이 요구된다. 현재공파종회 힘만으로는 힘들 것 같다. 종보 게재를 통해서 많은 일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기대한다. 앞으로 현재공파종회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선조님의 묘소를 찾고, 관리하고 제사를 올리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주의 모든 것은 알고보면 다 절대요, 본래면목(本來面目) 자체이니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선조님께 예를 갖추는 것은 본래면목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요, 진아(眞我)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되는 것이다.

(취재=심종래 편집위원 겸 기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 (29)

백성 위한 일에 어찌 물러남이 있으랴

- 충장공(忠壯公) 대(岱) 할아버지



沈厚燮

아동문학가 · 대구문인협회장

인보(仁輔)야, 너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로 맨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827번길 116-5번지에 가면 우리 집안 심대(沈岱, 1546~1592)

장군의 묘소가 의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경기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입구에는 신도비(神道碑)도 우뚝 서 있어. 이곳의 옛 주소는 완장리 산119-1번지인데, 묘소 아래쪽에는 지난 호에서 소개된 심대부(沈大孚, 1586~1657) 할아버지 묘소도 옮겨와 있어. 대부 할아버지는 심대 장군의 아드님이셔.

인터넷족보(1권 30쪽)에는 대(岱) 할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

자(字)는 공망(公望)이요, 호(號)는 서돈(西墩)이다. 병오생(丙午生)이고, 임신(壬申)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사인(舍人) 검상(檢詳)을 거쳐 경기감사(京畿監司)로써 삭녕(朔寧)에서 전망(戰亡)하니, 기(忌)는 10월 18일이요, 호성훈(扈聖勳)에 추록되고, 영의정청원부원군(領議政靑原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영조(英祖) 임신(壬申)에 정려를 명(命)받고 시호(諡號)를 충장(忠壯)이라 내리니, 임환불망국찰(臨患不忘國曰忠)이요 충사우원야왈장(忠死于原野曰壯)이다. 정조(正祖) 신해(辛亥)에 삭녕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표절(表節)이라 증액(贈額)하였으며, 묘는 용인(龍仁) 현내면(縣內面) 완장리(完章里) 함봉산하(函封山下) 해좌(亥坐)이다.

배(配)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이니 부(父)는 우윤(右尹) 홍한(弘憫)이요, 참판 서린(瑞麟)의 손(孫)이며, 외조는 도사(都事) 전의(全義) 이용강(李用剛)이다. 무신생(戊申生)이고, 을축(乙丑) 5월 13일 졸(卒)하니, 묘는 합부(合祔)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대(岱) 할아버지는 조선 중기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간 문신이었지만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

대(岱)라는 이름은 대산(岱山)을 가리키는 바, 대산은 오악(五嶽) 중의 하나로서 '크다'는 뜻을 품고 있고, 공망(公望)이라는 자(字)에는 '여러 사람이 바라는 인물이 되어라.'는 뜻이 들어있어. 그리고 호(號)인 서돈(西墩)은 서쪽 돈대(墩臺)를 가리키니 무엇을 잘 지키라는 뜻이 들어있어. 돈대는 평지보다 약간 높은 땅이나 세워진 시설물을 가리키거든.

대(岱) 할아버지는 세종 임금의 장인인 온(沈溫, 1375~1419) 할아버지의 5대손으로서, 1584년에 언

관(言官)으로 나아가셔서 봉당의 폐단을 논하셨고,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한 공로로 우부승지와 좌부승지를 지내며 왕을 호종(扈從)하셨어.

임진년 5월 3일자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 1541~1607), 충청도관찰사 윤선각(尹先覺, 1543~1611) 등이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오다가 공주에 이르러, 한양이 함락되고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거동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본진으로 돌아갔다. 선조는 날마다 남쪽을 바라보며 원군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에 심대(沈岱)가 남쪽으로 가서 이광에게 명을 전달하겠다고 자청하자, 선조가 매우 기뻐하면서 당상관으로 승직할 것을 명하니 심대는 울면서 굳이 사양했다. 심대는 왜군에 의해 육로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심대는 결국 이광을 만났고 임금의 뜻을 전하며 질책하자 비로소 윤선각과 더불어 병사를 합쳐 다시 북상을 시작했다. 심대가 평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전하니 선조와 조정은 크게 기뻐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

그 뒤, 대 할아버지는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이곳의 왜적을 격퇴하고, 마침내 한양 수복을 눈앞에 두게 되셨어. 이 때 위협을 느낀 왜적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대 할아버지는 그만 안타깝게도 전사하시고 말았어.

이 때 왜적들은 대 할아버지의 시신을 서울 거리에 참시(斬屍)하였는데, 60일이 지나도 마치 산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고 해.

이 비보가 행재소(行在所)에 전해지자 선조(宣祖)는 대 할아버지를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하였고, 뒤에 좌찬성(左贊成)으로도 추증한 다음 청원군(靑原君)에 봉하고,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내렸어.

1604년(선조37)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었고, 1610년(광해군 2)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봉해지면서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어.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은 『징비록(懲毖錄)』에서 우리 대 할아버지에 대해 '대단히 정의로

심대장군 묘 (沈岱將軍墓)
Tomb of Sim Dae

지정 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3호
지정년월일 : 1972. 5. 4
시 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 119-1
분 류 : 무덤 / 봉토분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서돈 심대(西墩沈岱 1546~1592)의 묘이다. 심대는 청송(靑松) 심씨로, 선조 5년(1572)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왕을 보호하며 의주까지 모셨다.

경기도관찰사 시절 한양을 수복하는 작전을 계획, 추진하려다 삭령군(淸川郡 : 현 연천군)에서 왜군의 야습으로 전사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 37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올라 청원군(淸原郡)에 봉해졌고 좌찬성으로 추증되어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광해군 2년(1610) 영의정에 추증되고 청원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심대 장군의 묘역에는 묘치, 상석, 망주석 등이 남아 있다.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의 일반적인 묘역구조는 봉분(封墳) 앞에 묘비(墓碑)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을 두었다. 상석 앞에는 장명등(長明燈)이 있고 그 좌우에 동자석(童子石),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官石)이 각각 1쌍씩 있다.

심대 장군의 묘소 안내판

운 사람인 까닭에 왜란이 발발하자 분을 참지 못했다. 그때부터 명령을 받아 출전하게 되면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않았다.'라고 썼어.

그래, 이로 보면 우리 대 할아버지는 나라가 위험해지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장(戰場)을 누비셨음을 알 수 있어. 우리 집안에는 이처럼 의로운 선조들이 많이 계셨어. 그러니 우리가 어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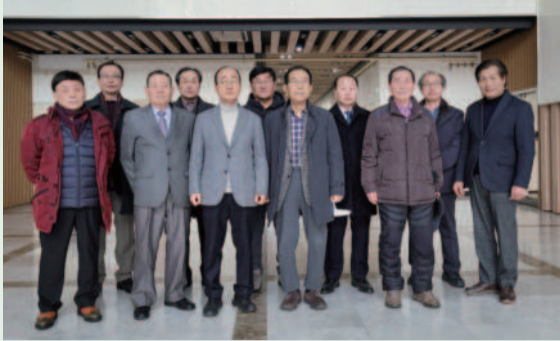


심대 장군의 사당과 신도비

방방곡곡, 승조돈목의 현장!

대중회 활동 사항

안효공종회 신년교례예방(2월6일)



안효공종회 예방...왼쪽부터 심우섭 부회장, 심영섭 부회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우섭 안효공종회장, 심언촌 부회장, 둘째줄 왼쪽부터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언태 대중회 총무이사, 심원섭 총무이사,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봉섭 재무이사,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중보제159호 심수일 회장 기사 액자 전달(2월17일)



심대평 대중회 회장(왼쪽)으로부터 기념액자 수여받는 심수일 삼정 가스공업 회장

충청심씨부산총회 임원단 간담회 (3월23일)



왼쪽부터 심상보 부산총회 총무, 심재철 부산총회 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재덕 부산총회 회장

전북 익산 한일문화연구원 주관「진포해전 심덕부 도원수 상정물 건립」간담회(3월15일)



왼쪽부터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심성섭, 심규정 재무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의두 한글세계화재단 총재

2세조 합문지후공(휘 淵) 묘소 아래「연못」완공(3월15일)



전라북도 익산시 합열읍 남당리 산64. 남당산(사진=심진섭 골프포우 대표이사)

(재) 청심장학회 발전방안 간담회(2월17일)



왼쪽부터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심수일 삼정가스공업 회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상조 장학이사회 이사, 심오택 장학위원회 위원장, 심보균 장학위원회 위원, 뒷줄왼쪽부터 심상익 장학위원회 위원, 심한철 경무관, 심규정 장학이사회 사무국장, 심규선 중보 명예편집장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제1부위원장, 심창욱 시의원 초청 예방(2월21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왼쪽부터 심갑섭 이사, 심상우 판사공종회장, 심창욱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상익 문화이사, 심재규 청광회 회장, 심철의 제1부위원장, 심재윤 청광회 총무

인천 삼정가스공업 용일·수일 회장 형제... 철원 직계선조 재가 참배(3월14일)



왼쪽부터 심상익 문화이사, 심상규 감사, 심수일 회장, 심상국 철원총회 회장, 심용일 회장, 심상규 이사, 심상범 이사 (사진=심동섭 철원총회 총무)

1380년「진포해전」전북 익산시 용포 해안지대 격전지 현장방문(3월15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재성 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성섭 이사

2023년 조선 제20대 왕인 경종(景宗)의 비(妃) 단의왕후 기신제 봉행(3월8일)



아현관 심석규 효창공종회 부회장

중보제159호 심한철 경무관 기사 액자 전달(2월17일)



심대평 대중회 회장(왼쪽)으로부터 기념액자 수여받는 심한철 경찰청 경무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영임 구의원 초청예방(2월21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왼쪽부터 심성식 청청회 회장, 심갑섭 이사, 고영임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심상익 문화이사, 심재규 청광회 회장, 심상우 판사공종회장, 심재윤 청광회 총무, 심성식(고영임 의원 남편)

한글세계화재단 익산지회 심재성 지회장 대중회 예방(3월13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성섭 이사, 심재성 익산지회장, 심상익 문화이사

아산 진사공종회 임원단 대중회 예방(3월17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웅근 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 심, 심행근 진사공종회 회장, 심희국 진사공종회 총무, 심의보 진사공종회 총운, 심언태 총무이사

석전대제 봉행(3월9일)



금릉대성원(1927년 심성택 선조께서 사재로 설립한 한국 유일의 사립 서원 및 공자를 모신 향교임)...왼쪽 첫 번째 심덕섭 통진창교 창의, 여섯 번째 심형찬 금릉대성원장 겸 수찬공종회장, 여덟 번째 심상우 성균관유도회 김포지회장, 뒷줄 왼쪽 끝에선 분 심양섭 전 사인공종회장 (사진=심재성 수찬공종회 총무)

지파중회 활동사항

만나서 반갑고, 함께해서 행복하고 ...

沈正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취임 축하회(1월 26일)



왼쪽부터 심종래 홍보편집위원, 심익섭 사복시정공공회장, 심경진 우리중회 사무총장, 심재섭 청심회 회장,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상익 문화이사, 뒷줄 왼쪽부터 심한섭(주) 우리 부사장, 심재만 전 화성시국장, 심제섭 이사

대구중회 신년교례회(2월 3일)



청송심씨대구중회 청장년회(회장 심봉섭, 인사말씀하시는 분) 주관으로 대구중회 어른신을 모신 2023년 신년교례회가 개최되었다.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 발령 축하방문(2월23일)



왼쪽부터 심성기 춘천중회 총무, 심명섭 총경, 심희섭 춘천중회 회장

명지대 심규순 교수 해외공연...태국 국제페스티벌(1월27일)



국가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심규순 교수(원안에 있는 분)

청심회 임원단 진행위터웨이 전시회 축하방문



왼쪽부터 심학섭 진행위터웨이 사장, 심익섭 청심회 감사, 심창섭 청심회 초대 회장, 심재섭 청심회 회장,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전북 고창군 청송심씨중친회 신년회(1월23일)



심덕섭 고창군수(앞줄 가운데 정장차림) 내외를 비롯한 고창군 등 지역 일가분들

청송중회 정기총회(2월11일)



청송중회는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심은섭씨를 신임총무사로 선출하였다.

청보산악회 시산제 봉행(3월5일)



아랫줄 왼쪽부터 광보, 정섭, 구형, 중혁, 재구, 우철, 창보, 뒷줄 왼쪽부터 재근, 일가가족, 종복, 훈보, 흥섭, 영섭, 봉섭, 재철, 상열, 갑택

2023년 3.1절 소류 심성지 의병장 추모식(3월1일)



윤경희 청송군수(인사말씀하는 분), 권태준 군의장, 정미진 군의원, 심상홍 군의원 등 지역인사 및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 소류 심성지의 병장기념사업회 심홍섭 회장, 심봉섭 종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심봉섭 소류공 종손)

충북중회 창립발족식(3월10일)



충북중회는 창립발족식을 개최하여 심상호 회장, 심의보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시군구 지회장을 위촉하였다.

청수회 전북위원회 신년회(1월26일)



왼쪽부터 심기영 위원장, 성엽, 영석, 기사, 우철, 숙희, 기좌, 성섭, 심기좌의 딸 김주은(초등부 장학생), 관섭, 양섭, 숙자, 희숙, 수자, 임은희 공예작가, 재성, 채한성 대표 (사진=심기희)

양주청수회 모임(2월13일)



왼쪽부터 심재희 우리은행 광적지점장, 심수연 양주 가은텍스타일 대표, 심봉섭 양주 M&A 대표이사, 심재선 양주 남문중학교 교감선생님, 심행보 한국페이퍼 사장, 심기선 한양산업개발 회장

청송심씨충북중회 창립총회(3월10일)



충북중회 창립총회는 심상호 회장, 심의보 사무처장(연단에서 인사하는 분) 등 임원을 선출하고, 충북도내 시군구 지회 결성에 나섰다.

2023년 3.1절 기미독립선언서 공약3장 낭독(3월1일)



낭독 연천군문화원 심덕보 자문위원장(심상우 의병장 후손)...김덕현 연천군수, 심상금 군의장 등 지역인사 등이 참여했다.

곡산공중회 정기총회(3월 18일)



곡산공중회(회장 심재갑, 총무 심창선)는 김포 학운재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 총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승진, 영전, 수상, 발간을 축하합니다.

청송심문 사람들 - 이런일 저런일

경찰청 총경 전보 (2월2일)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심현규 총경



경남도경찰청 수사과장 심태환 총경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총경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취임(2월 5일)

코리아타임스 논설실장 취임(2월 20일)



심영재 신임 기획조정실장



심재윤 논설실장

방송경영인연합회 초대 회장(3월8일)

울릉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취임(2월20일)

부산중구체육회 회장 취임(2월24일)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에 선출(2월28일)

제주「법환동 사람들」출간 (1월20일)



심수현 회장



심상걸 회장



심재철 회장



심승일 삼정가스공업 회장



沈국향 두머니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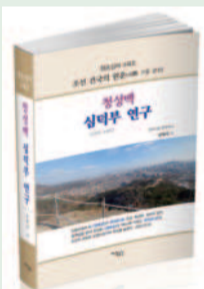
『청성백 심덕부 연구(개정증보판)』 발간 (2022년11월25일)

심영숙 작가, '2023 대한민국 인물 대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1월20일)

대한민국 관악상 수상(1월28일)

沈항란 보성군 한국천연염색 숲 대표, '2022 올해의 인물대상' 수상(1월12일)

2023년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 (1월13일)



심재석 문학박사 증보편집위원



계아 심영숙 화백



심재선 양주 남문중학교 교감선생님



심항란 보성천연염색공예관장(왼쪽)



심미경 서울시의원

2023년 전반기 정기인사

(경기도 김포시)(1월2일)
◇ 6급이사 전보 ▲ 장기동장 심재웅 ▲ 보건소북 부보건과장 심민섭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팀장 심필기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지도 기획팀장 심성규

(경상북도 청송군의회)(1월17일)
◇ 승진·전보 ▲ 의정담당 심현성

(경상북도)(1월25일)
◇ 5급 전보 ▲ 대변인실 심명섭 ▲ 어르신복지과 정필란 심미조

(법무부)(1월25일)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형사기획과 심재빈 ▲ 제주지검 심명숙 ▲ 고위공무원 승진 ▲ 정읍교도소장 심성일

(법무부)(1월27일)
◇ 고양지정 ▲ 검사 심재신(沈在鎭) ▲ 평택지정 ▲ 검사 심요한(沈요한)

(대전 동구)(1월30일)
◇ 행정6급 ▲ 회계정보과 심용숙

(대전 대덕구)(1월30일)
◇ 행정6급 ▲ 자치행정과 심윤정

(교육부)(1월30일)
◇ 인사발령 ▲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파견 심규태

(한국콘텐츠진흥원)(1월30일)
◇ 방송영상본부 ▲ 애니메이션산업팀 팀장 심희대

(예금보험공사)(1월31일)
◇ 3급 승진 ▲ 심재필

(한국자산관리공사)(1월31일)
◇ 2급 승진 ▲ 정보시스템실 심진걸

(경기도)(2월7일)
◇ 사무관 전보 ▲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심성보

(한국국토정보공사LX)(2월3일)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남부지사장 심홍섭

(기획재정부)(2월13일)
◇ 과장급 인사 ▲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광주광역시 광산구)(2월13일)
◇ 승진전보 ▲ 외국인주민과 심남주

(경기도)(2월13일)
◇ 6급이하 전보 ▲ 경제투자실 심지혜 ▲ 보건환경연구원 심희숙 ▲ 미래성장산업국 심재연 ▲ 자치행정국 심재덕

(경기도 군포시)(2월13일)
◇ 팀장급 전보 ▲ 금정동 행정민원팀장 심은영 ▲ 수리동 심숙향

(서울지방경찰청)(2월28일)
◇ 경정 전보 ▲ 서울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장 심승섭

(강원지방경찰청)(2월14일)
◇ 경감이하 전보 ▲ 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심수정 ▲ 도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경사 심재학 ▲ 도경찰청 자치경찰부 교통과 경장 심용보 ▲ 도경찰청 제2기동대 순경 심현보 ▲ 원주경찰서 경감 심민수 ▲ 원주경찰서 순경 심응현 ▲ 태백경찰서 경감 심만섭 ▲ 고성경찰서 경감 심종수

(대법원)(2월20일)
◇ 부장판사 전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심동영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근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심 판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욱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심재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심홍걸 ▲ 고등법원판사 전보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심용비 ▲ 지방법원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 서울행정법원 판사 심용아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광주광역시교육청)(3월1일)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 동부교육지원청 심말옥 ▲ 교감전보 ▲ 금당초 심수진

(대전광역시교육청)(3월1일)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대전구봉고 심지현

(강원도교육청)(3월1일)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충북도교육청)(3월1일)
◇ 유·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심정섭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심광주 ▲ 6급 전보 ▲ 충주교육청 심재유

(충남도교육청)(3월1일)
◇ 초등교장 전보 ▲ 청룡초 심재성 ▲ 도교육청 장학관 ▲ 교원인사과 교원보호팀장 심상주 ▲ 민주 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장 심순희

(전북도교육청)(3월1일)
◇ 서기관 승진 ▲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전남도교육청)(3월1일)
◇ 중등교장 승진 ▲ 여수고 심민성 ▲ 교장 전보 ▲ 순천주암중 심우상

(경북도교육청)(3월1일)
◇ 교장 전보 ▲ 길주초 심상영 ▲ 교감 전보 ▲ 영천교육지원청 심영진 ▲ 교감 승진 ▲ 안동교육지원청 심광훈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및 전직 ▲ 교육국 체육건강과 심준석

(경남도교육청)(3월1일)
◇ 초등교장 전보 ▲ 마산 진동초 심성우 ▲ 김해 대동초 심광보

공지사항

1. 종보 구독자 1만 명 달성 협조요청

청송심씨중보는 국내의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파종회 및 지역총회 행사, 제향봉행, 족보수단, 선조 사적지 소개, 장학사업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 심문(沈門)의 소식 정보지입니다. 대중회는 연 찬조금 1만 원 이상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구독자 확대와 저명한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2. 임원회비 제도 변경

금년도부터 임원(회장단, 이사 등)의 회비 명목을 없애고, 대신 '종보 찬조금' 또는 '장학 찬조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원회비 → 종보찬조금 또는 장학찬조금 명목으로 납부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장학기부금 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청심장학회

3. 일가분을 찾습니다

2월 10일 입금: 장학기부금 5만원 / 종보찬조 3만원 입금하신 심만섭 님은 대중회로 연락바랍니다.

2023년도 춘향(春享) 일정표 (5처묘소 2단소)

세(世)	제향일시	장 소	비 고 (주차장)
시 조 문림랑공	4. 6(목) 정오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덕리 427
2세 조 합문지후공	4.30(일) 11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리 243-1
3세 조 청화부원군	5. 2(화) 11시	안성시 당왕동 산19-6	당왕동 290
4세 조 정안공	5. 4(목) 11시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아미리 554
4세 조 배위 (청주송씨)	5. 6(토) 11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분평동 262
4세 조 악은공	5.14(일) 정오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71	덕천리 271

각 찬조 2023.1.15 ~ 2023.3.20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재선 공성운수(주) 회장	심상돈 스타기보청기 그룹 회장	심장식 함흥공파중증 회장	심재환 춘주어산공파 새해결충 회장	심행보 한국페이퍼 회장	심충식 전 청심회 회장	심행근 아산진사공파중증 회장	심상호 청주중회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종보찬조 200만원 2022년12월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2월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재문 부사공중회 회장	심재월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심희준 심지회 회장	심종택 임천공파중회 회장	심재금 대중회 고문	심재덕 부산중회 회장	심현보 (주)그로우건설 대표
장학찬조 300만원 2023년1월	장학·종보찬조 400만원 2023년1월	장학찬조 50만원 2023년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3년1월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23년1월	장학찬조 50만원 2023년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3년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3년2월

인수부윤공(諱:澄)파 중회 정기총회 개최

2023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망세정공 춘향절사 봉행일에 맞춰 개최합니다.

- 제향 일시 : 5월12일(금) 11:00
- 총회 일시 : 5월12일(금) 12:00
-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7번길 43-5 (양지리 325-1) 망세정공 재실
- 안건
 - 2022회계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 기타 중무에 관한 사항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중회 회장 심재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심좌보 인천중회 회장(2월20일 별세)은 대동세보 발간과 인터넷 족보 등재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故 심좌보 인천중회 회장

<지난호 정정사항>

159호 12면 심재석 글 — 첫면 도표 부분 아래 “심의겸(沈義謙)” ⇒ “심의검(沈義儉)”

종보찬조 2023.1.15 ~ 2023.3.20

30만원	심재금(김포) 심흥식(서울) 도정공파곡성중회
20만원	심달훈(감사) 심영훈(서울) 영신푸드(주) 심재금(서울)
10만원	심재화 심원철 심문수 심은석 심극택(서울) 심춘보 심광식 심재웅(서울) 심상홍(김포)
6만원	심강채(전남)
5만원	심보균 심상대(용인) 심진규 심종우(부산) 심승길 심종선 심진식 심상복(청송) 심은섭(충북) 심재웅(대전) 심학선 심상경 심상근
3만원	심여남 심재충(덕소) 심만섭 심광연
2만원	심재경 심영희(일산) 심백규 심성보 심정하
257,010원	지로종보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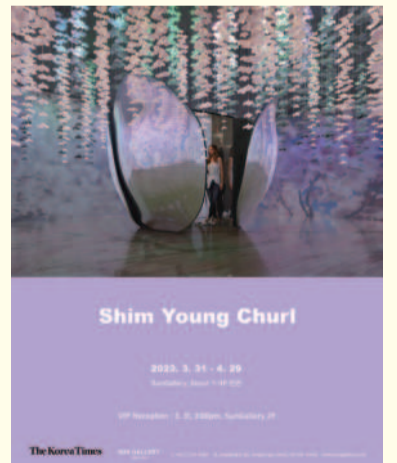
장학찬조

200만원	심재덕 부산중회장
100만원	(주)그로우건설 심현보 대표
50만원	심재금(서울)
20만원	심종혁 인수부윤공파중회 부회장
6만원	심재희 우리은행 지점장
5만원	심만섭 심재웅(대전) 심상경
2만원	심준호(청송)

설치미술가 심영철 교수 「작품 전시회」 안내



심영철 교수



제52회 <춤추는 정원(Dancing Garden)>

• 전시기간 : 2023년 3월 31일(금) 17:00~4월 29일(토)

※ 일요일 휴관

• 전시 장소 : 인사동 선화랑 전관 Sun Gallery 2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8 (연락처 02-734-0458)

1층 : 꽃비 정원(Flower Gain Garden)

2층 : 흙의 정원(Soil Garden)

3층 : 물의 정원(Water Garden)

4층 : 하늘 정원(Sky Garden)